

▶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는 새를 보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나선다. 사진은 도서탐조(島嶼探鳥)를 위해 배에서 내리고 있는 야조회 회원들 모습.



활발한 탐조활동...대학생 아마추어단체

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

전국 8개 대학 野鳥會 회원들의 모임인 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는 순수한 대학생 아마추어단체로 매년 도서探鳥와 한강겨울철새 조사 등 활발한 연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틀 무렵 호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고니, 공원에서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놀고 있는 박새와 오목눈이, 산에 오르다 땀을 식힐 무렵 어디선가 들려 오는 휘파람새의 노랫소리, 이들은 모두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닦아주는 고마운 청소원이요, 휴식처다. 또한 철원에서 철조망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두루미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어 준다.

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이하 野鳥會)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모임으로 1982년 서울대학교를 선두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1983), 한남대학교(1983), 단국대학교(1986) 등의 학교에서 생겨나 상호 교류를 하다가 1989년부터 정식으로 대학연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현재 야조회에는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이상의 8개 대학교 야조회가 가입되어 있다.

야생조류연구를 통한 자연보호 의식의 함양과 각 대학 야조회간의 교류 등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는 야조회는 순수한 대학생 아마추어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별 탐조·전시회

연합활동으로는 매년 7~8월 사이에 도서 탐조(4박5일)가 있고 음력 12월 보름경엔 낙동강 및 주남저수지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4박5일), 2월 초순에는 한강 겨울철새 조사, 11월경에 조사 발표회, 그리고 거의 매달 있는 대장단 회의가 있다. 학기 중엔 각 학교별로

주말마다 간이 탐조, 새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근처의 유명한 철새 도래지를 조사하는 학교(단국대학교 : 서산 간척지 조사, 서울대학교 : 강화도 도요·물떼새류, 한남대학교 : 금강 겨울철새 조사 등)도 있다.

한편 그 동안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1993년 1월에는 낙동강 하구 겨울철새 실태조사 보고서를, 1995년 3월에는 한강 겨울철새 도래 현황조사 보고서를 각각 낸 바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각 지역의 YMCA와 한강, 낙동강, 서산 등지에서 환경탐사를 돕고 있고, 한국이동통신에서 주최하였던 전국 국립공원 조사 공모에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각각 북한산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을 조사하여 나란히 금상을 타기도 하였다.

유럽선 최고급 취미활동

유럽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탐조가 최고급 취미활동으로 인식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에도 각 지역별로 수천명의 일본 야생조류연구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탐조연구도 적고 우리나라 새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미약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새를 탐조하기 위해선 쌍안경, 도감,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새들

은 운동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새를 기다리고 따라가는데(새들의 번식기에는 이런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야 우리는 자연의 친구인 새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비없이도 야외에서 새소리를 듣고 노는 것을 감상하는 것도 행복한 경험이다.

우리들은 새를 찾아다니는 것을 일컬어 탐조(探鳥)라고 한다. 새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늘 두발로 혹은 배를 타고 새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한여름 찌는듯한 더위와 싸우고, 눈에 빠지기도 하고, 먼지를 온 몸에 뒤집어쓰기도 하고, 겨울에는 언 땀으로 먹기도 하며,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걸치고 물을 건너지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새를 보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쓰는 것이 우리 야조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야조인이 가장 좋아하고 모든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이 탐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야조회의 가장 큰 특징은 뛰니뛰니 해도 순수한 대학생들의 전국 연합모임이라는 것이다. 모든 회원이 젊기에 열정적일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모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우리나라 각지의 학생들과 대화하고 이해하며 지낸다.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간 OB(Old-Bird) 선배님들도 야조회를 잊지 못하고 연합 탐조 등에 계속 참여하고 YB(Young-Bird)들과 섞여 같이 활동하고 YB가 되는 것이다. 연합탐조 때나 방학 때면 솔로써 밤을 새울 때도 많지만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번 야조인은 영원한 야조인이 된다.

몸으로 뛰는 환경운동

야조회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씩 새 이름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새를 하나 골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수리부엉이, 콩새, 물닭, 가마우지, 꼬마물새떼, 황제펭귄같은 조금은 장난스러운 이름도 있고 섬참새, 상모솔새, 유리새, 멧장이새, 호반새같은 귀엽고 예쁜 이름도 있다.

그래서 야조회에서는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즐겨 쓰고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도 많다. 이 새 이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친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새와 더욱 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새 이름은 모두 순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한다.

조류는 환경에 매우 민감한 생명체이다. 새들은 언제나 황폐해진 환경을 버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류는 그곳 환경의 지표가 되고 조류를 조사함으로써 그곳 환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5년 야조회 연합활동 계획

활동내용	장 소	일 정
제10차 도서탐조	미 정	7월말~8월초(4박5일)
제14차 낙동강 겨울철새 조사	낙동강 및 주남저수지	1996년 1월 중순경
제11차 한강 겨울철새 조사	한 강	1996년 2월 초순경

요즘 수질오염문제, 개발 문제로 말썽이 많은 낙동강 겨울철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

조금은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들 야조회의 목적은 "조류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서의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야조회는 몸으로 뛰는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환경

연합야조회 대학 주소록

학교명	주소
단국대학교(천안 캠퍼스)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동 산 23
서울대학교(수원 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포항시 효자동 산 31
한남대학교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야조회의 활동은 그 중요성을 나날이 더해 갈 것이다.

우리 야조회는 새를 좋아하고 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대학생(반드시 대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며, 새로운 대학교 동아리의 가입을 기

대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거나 탐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나 학생은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 야조회에 들러 문의하면 된다.
정철호<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 7대 회장>

에 · 외 · 단 · 신

분자의 指紋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테라핀 테크놀러지사는 질병을 치료할 것이 확실한 화합물을 과학자들이 집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자의 지문'이라 불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화학과 생물」지 올 3월호에 발표된 이 회사의 방법은 서로 전혀 다른 약 50개의 화합물을 선택하고 이것들 하나 하나를 목표로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테스트한다.

그 후 TRAP이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다.

어떤 물질이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근거를 두고 가장 이상적인 화합물을 가려낸다. 말하자면 가장 성공적인 테스트 물질 세가지에서 네가지의 성능을 결합한다.

그 후에는 3만개 이상의 잠재력이 있는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범주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을 찾아낸다.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메디컬센터의 프레드 코헨교수는 "특허를 얻어 놓고 있는 이 과정은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은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퀴리부부 유해, 파리의 판테온으로

프랑스 파리의 솔본느에서 가르친 최초의 여성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부인이 이제 프랑스의 '위대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묘지인 판테온에 묻히는 자격을 얻은 업적을 이

룩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미테랑 대통령은 그가 작년에 약속한대로 퀴리부인과 그녀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의 유해를 이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파리의 라틴 구역에 돔 모양을 한 기념관인 판테온은 1903년 퀴리로 하여금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한 복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곳인 퀴리연구소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념관에는 소피 베르테루이라는 여성이 이미 묻혀 있는데 그녀는 화학자이며 정치가인 남편 마르셀린 베르테루(1907년 사망)를 따라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마리 퀴리부인이 노벨상을 두번 받았지만 과학원은 그녀의 가입을 거절했었다.